

없었네. 30분 정도 지나자 포성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어. 그런데 이 침묵이 나로서는 앞서 울려 퍼지던 불길한 소리보다 훨씬 더 무섭게 느껴졌다네.

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, 불안한 마음을 서로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서둘러 앞을 향해 갔지. 자정 무렵에야 우리는 땀투성이가 되어 금모래 지구에 있는 바닷가에 도착했어. 그 앞에서는 파도가 굉음을 내며 부서지고, 눈부시게 하얀 포말과 함께 빈쩍이며 튀어 오르는 광채가 바위와 모래사장을 가득 뒤덮고 있었네. 밤이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저 인광으로 빈득이는 불빛에 모래사장 아주 안쪽까지 끌어올려진 어부들의 쪽배 넷 척이 눈에 들어왔어.

거기서 얼마간 떨어진 숲 어귀에서 우리는 불이 피워져 있는 것을 보았고, 그 불 주위로 여러 주민들이 모여 있었네. 우리는 그곳으로 가서 날이 밝아올 것을 기다리며 휴식을 취했지. 불 가까이 앉아 있었을 때, 주민들 중 한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길, 자기가 오후에 먼 바다에서 조류에 휩쓸려 섬으로 밀려가는 선박을 보았는데, 밤이 오면서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했네. 그러다 해가 지고 두 시간가량 지난 뒤 그 배가 구조를 요청하느라 대포 쏘는 소리를 들었지만, 바다가 너무 험악해서 그쪽으로 가려 해도 도저히 출항시킬 수 없었다고 했어.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선박의 표지등이 켜지는 것을 본 것만 같았는데, 아니 그런 경우